| 현불 논단 |

언론중재법 개정과 교각살우

이화행 교수
동명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興 추진 언론중재법 개정
25일 본회의서 처리될 듯
"언론들에게 재갈 물리기"
野 · 언론단체 반발 지속
해외서도 우려 목소리 커

팩트체크 강화 등이 추세
강행처리 중단하고 논의를
가짜뉴스 대책 재수립해야

허위 · 조작 보도(가짜뉴스)에 대해 최대 5배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여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야당과 언론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8월 국회 내 강행처리 방침을 고집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8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서 25일 본회의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국민의힘은 "언론 재갈 물리기"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의당과 4개 언론단체(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는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훗날 한국 언론사에 유례없는 언론 자유 침해의 기록으로 남을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이들은 민주당이 모든 언론을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혐오를 부추기는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몇몇 독소조항들은 결과적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멀게 해 민주주의의 근본을 위협하는 교각살우(矯角殺牛)가 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개정안의 즉각적인 보류를 요구하였다.

기자협회보가 기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기자들 2명 중 1명(50.1%)은 언론을 대상으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찬성은 34.3%에 그쳤다. 동의하지 않는 이유(복수응답)에 대해 응답자들은 '보도 위축 효과로 언론의 비판 기능 약화'(83.2%)와 '전략적 봉쇄 소송의 오남용(52.5%)'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전해오고 있는데, 세계신문협회는 "개정안이 그대로 추진된다면 한국 정부는 최악의 권위주의 정권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국제언론인협회(IPI)는 홈페이지에 "한국은 새로운 '가짜뉴스' 법을 철회해야 한다"는 제하의 성명을 게재하고 "'가짜뉴스'를 게시한 언론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국의 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다수의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에 대해 현행법에서 민법상 손해배상과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중복된 규제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

허위 · 조작 보도의 정의나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 해석에 따라 언론 보도에 대해 전략적으로 소송을 청구해 언론의 비판 기능을 무력화할 가능성이 있으며, 결과적으로 민주주의의 보루인 언론을 허위조작 정보의 주범으로 인식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세계 선진국들은 팩트체트를 강화하고, 미디어 리터러시 강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세계의 트렌드에 역행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의석수로 밀어 붙이려는 집권 여당의 행태는 "가짜 뉴스, 왜곡 보도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허위 · 조작 보도에 대한 피해구제"라는 입법 취지의 실현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킬 뿐이다. 가짜뉴스를 잡겠다는 법이 언론의 비판적 보도 기능을 위축시키고,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민주 시민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당은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강행처리를 즉각 중단하고, 이제라도 언론계 등 시민사회 구성원들과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내실 있는 공론화 절차를 통해서 인터넷 개인 미디어를 포함한 소위 '가짜뉴스'에 대한 종합 대책을 원점에서 재수립해야 한다.

社 說

'불교성전' 전자책, 시장 활성화 계기로

지난 2월 출시된 종단본 〈불교성전〉의 전자책 발매가 8월 9일 이뤄졌다. 사상 첫 종단본 성전의 전자책(e북) 발매 소식에 많은 불자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웹툰과 웹소설을 기반으로 전자책 분야는 날로 커져가고 있다. 그동안 일반 사회에서 전자책 시장은 매년 확대되고 있음에도 상대적으로 활성화가 되지 않은 불교 전자책 시장에 대한 아쉬움이 컸다.

불교출판업계에서는 이번 〈불교성전〉의 전자책 발매를 기점으로 경전을 수지독송하는 불교계 문화가 조성되고 이를 바탕으로 불교출판계의 중흥이 다시 다가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여러 가지 과제는 많다. 우선 불자들의 전자책에 대한 인식이 낮은 점이다. 불교 콘텐츠 DB 구축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전자책 전용 단말기의 보급도 더디다. 사찰 현장에서는 아직까지 종이책 중심의 경전을 활용하고 있다. 킨들과 아이패드 등의 전용단말기 시대에서 이제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범용 전자책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

전자책 산업은 책이라는 콘텐츠에 소프트웨어와 통신 등의 IT기술이 융합된 영역이다. 미래세대 포교에도 핵심적으로 연결되는 분야이다. 외부에서는 디지털 교과서 등 공공 전자책 시장까지 싹트고 있다.

〈불교성전〉의 전자책 발매로 계기로 종이책의 전자화와 DB 구축에 대한 관심과 함께 불교 전자책 산업이 규모의 경제를 갖추기 위한 범종단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불자 개개인이 경전을 읽는 문화부터 차근차근 밟아가야 할 것이다.

금강산 옛 순례길 복원을 향한 기대

옛 수행자들의 신심과 원력이 오롯이 담긴 금강산 옛 순례길이 복원된다는 소식이다. 옛 스님들의 순례길이 복원된다는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보다 더 대중들의 관심을 사로잡는 것은 이 순례길이 남과 북을 하나로 잇는 평화의 길이라는 점이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가 고성군과 함께 추진하는 금강산 순례길 복원사업은 남북 협력사업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두루 갖추고 있다. 특히 현재 단절되고 혼란스러운 남북관계 속 돌파구를 만드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기대다. 무엇보다 그 의미가 남다르며 현실화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금강산 순례길 복원 사업은 남과 북의 합의를 거친 후에야 진행될 수 있었던 이전의 교류협력 사업과 달리, 금강산을 향하는 남측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조사 · 복원해 기본토대를 다질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거점지역 중에는 고성 건봉사는 물론, 고성군 민통선 내 폐사지인 조제암터도 포함돼 있다. 큰틀에서 조제암터의 복원이 후속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유다. 이를 위해 민추본은 고성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가운데, 건봉사와 불교문화재연구소,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도모하고 있다.

북측 입장에서도 마다할 이유가 없다. 인도적 지원에 의존하던 과거와 달리 현재의 북한은 지속가능한 사업을 통한 경제 활성화의 열망이 높기 때문이다. 때문에 향후 남북관계가 해소될 경우 금강산 순례길 복원사업은 북측과의 또다른 협력사업으로 대폭 확대될 수 있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금강산 옛 순례길 복원이 남북간 경색국면을 해소하는 물꼬가 되는 것은 물론, 나아가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교류를 지탱하는 토대로 나아가길 발원해 본다.



지인 스님의
병상포교일기

나무묘법연화경

얼마 전 72시간 탑돌이를 하는 도량에 다녀왔다. 꼬박 3일 동안 탑돌이를 하며 나 자신을 돌아보고 부처님께 참회를 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힘든 기도의 시간은 '정화'라는 선물을 주는 것 같다.

'나무묘법연화경'을 정근할 때 내 곁을 스쳐간 많은 환우들이 생각났다. 그들의 왕생극락을 기원하며 특히 한 환자를 떠올렸다. 호스피스 병동에 자리가 나기를 기다리며 일반병동에서 투병을 하던 중 상태가 급속도로 악화되어 급하게 1인실로 옮겨 그곳에서 임종을 맞게 된 환자였다.

아직 나이가 50대였고 늦게 암을 발견하여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였다. 그의 아내를 비롯해 가족들은 아직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어안이 벙벙해 보였다. 환자도 자신의 상태에 대해 많이 놀란 표정이었다.

"스님, 저희 남편이 왜 이런 병이 왔을까요? 저희 남편은 〈법화경〉을 두 번이나 사경 할 정도로 신심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 남편에게 왜 이런 병을 주셨을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가족들도 그렇고 거사님도 얼마나 놀라셨나요"라고 위로의 말을 전하면서도 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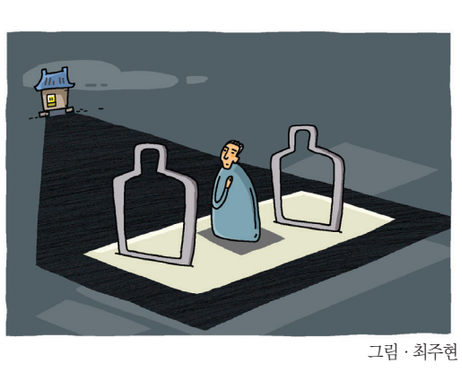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안할 지경이었다. 아직 병을 받아들일 수 없는 환자와 가족들을 만나는 일은 언제나 가장 안타깝고 마음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거사 분에게 "거사님 기도를 좀 해드릴까요"라고 물어도 그저 무표정이었다. 아내가 "그렇게 하자"고 남편을 다독였다. 우선 열 번 "나무묘법연화경"을 정근하였다. 그 순간 거사님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흘러내렸다. 아내는 비 오듯 쏟아지는 남편의 눈물을 손수건으로 연신 닦아내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을까. 병실을 찾았을 때 간호사로부터 상태가 심각해져 1인실로 옮기게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새로 옮긴 1인실 병실을 찾아 들어가려는 찰나, 환자가 이불로 꽁꽁 싸맨 이동용 침대가 병실에서 나오고 있었다. 임종을 한 것이다.

나는 깜짝 놀라 장례식장으로 연결된 엘리베이터에 함께 몸을 실었다. 나는 영가의 시신을 향해 '나무묘법연화경' 정근을 시작했고 아내도 흐느끼며 합장하였다. 지하로 연결된 주차장에는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었다. 장례식장도 자리가 없어 다른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동하려고 대기 중인 구급차였다. 나는 그 자리에서 '나무묘법연화경'을 정근하며 그의 극락왕생을 기도했다. 극락왕생을 향해 가는 자리에는 '나무묘법연화경' 좌석이 준비되어 있기를 발원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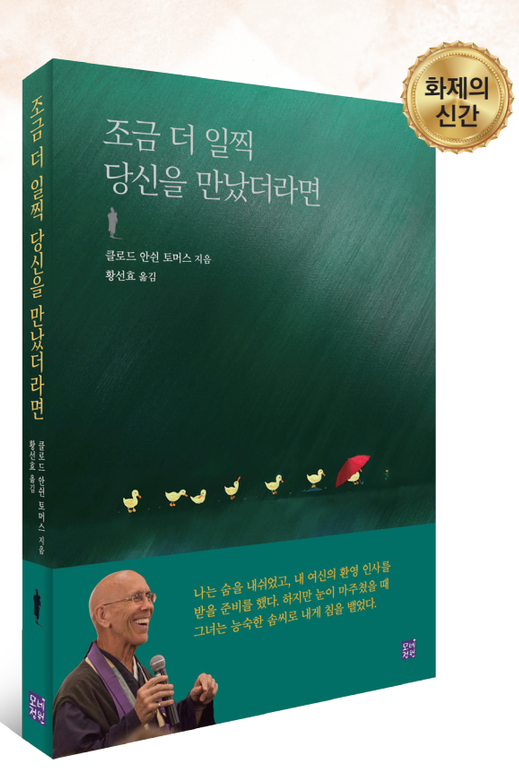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그래도 이 사람이 〈법화경〉을 사경한 공덕으로 마지막 가는 길에는 스님의 기도를 받고 가네요"라고 말하며 합장하였다.

단 두 번의 짧은 만남이었지만 안타까운 기억으로 남아있는 환자를 위해 탑을 돌며 '나무묘법연화경'을 걸음걸음에 새겼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도법사 · 일산 기쁨정사 주지〉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김재진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15~6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클로드 안쉰 토머스 지음 / 황선효 번역 / 232쪽

전쟁에서 사람을 죽였다고 고백하는 한 전쟁 영웅이
지옥 같은 트라우마 끝에 얻어낸 삶과 고통에 대한 실증적 깨달음의 책

고통을 삶의 또 다른 기회로 만든 사람의 이야기

조금 더 일찍
당신을 만났더라면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 치유를 향해 간다.

세상은 우리에게 고통은 적이라고 가르친다.
우리는 불쾌하고 실망스럽고 힘든 것은 거부하라고 끊임없이 주입받는다.
"이 모든 고통이 왜 필요한가? 행복하자! 즐기자!" 하지만 고통은 우리의 적이 아니다.
건너편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다.
반대편의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진정으로 알고 느낄 수 있는 것은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이다.



지은이 클로드 안쉰 토머스

10대 후반의 어린 나이로 베트남 전쟁에 파병되어
항공훈장과 공군수훈십자훈장을 비롯한
수많은 훈장과 상을 받은 전쟁 영웅이다.
전쟁에 대한 심각한 트라우마로 죽음 직전까지 갔던
그는 비영리 기구인 'Zaltho Foundation'을 창립해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각 곳에서 평화와
비폭력에 대한 강연 및 순례 활동을 하는
명상수행자로 거듭났다.

모네의정원 TEL. 02-732-1520 FAX. 02-6442-1521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 정가 ~~14,000원~~ ⇨ **12,600원** (배송비 별도)